

# 전남도,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대책 강화

## 17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분야별 집중점검

전남도는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수욕장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시 등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서해지방경찰청, 전남도 관련 실과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 물가, 위생·수질관리 등 분야별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협력키로 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준비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인덱스와 무더운 여름날씨 예보 등으로 해수욕장이

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30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7종 4000여개의 안전 장비를 비치기로 했다.

올해 전남도내 해수욕장은 목포 외도도 해수욕장을 포함해 65곳 중 56곳이 개장할 예정이다.

여수 만성리, 보성 울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이 오는 7월8일 가장 먼저 개장하며, 보성 울포솔밭 해수욕장은 8월27일까지 가장 기간인 51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 서구,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 중소기업 5곳 부스임차료 지원...판로확대 등 기대



내·외 판로확대 및 우수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업체 중 서구에서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동일 전시회 참여로 다른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에서 지원받거나 후·폐업 또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예산(1000만원)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 및 참가추진계획서 등을 구비해 서구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2-350-4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 광산구 고흥사랑기부제 동참 1천명 돌파

## 1000번째 기부자에 답례품·감사편지...이벤트 지속

지난 4월 고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도달한 광주 광산구가 총 기부자 1000명을 달성했다.

광산구 고흥사랑기부제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며 순항 중이다.

지역별로 광주를 주소재로 둔 기부자가 전체의 65%에 달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14%, 전남권이 11%, 기타 지역 10%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일 탄생한 광산구 고흥사랑기부제 1000번째 기부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시민이다. 광산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기 답례품과 편지를 전할 예정이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기부자들이

전체의 86%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오토캠핑장 숙박권, 승마체험권, 텃밭 분양권 등 서비스 품목부터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특색 있는 총 47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기부자 중 64%가 답례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모으는 고흥사랑기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누적 기부금 1억 원, 기부 참여자 1000명을 돌파한 광산구는 더 많은 고흥사랑기부제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답례품 만족도 및 고흥사랑기부금 사업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 북구,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 본촌근린공원·문화근린공원 등 실시간 예약서비스

북구가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이 문화공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현황 전화 확인, 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이용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북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공원시설 예약현황을 조회하고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지난달 말 구축·완료했다.

예약 가능 대상은 ▲본촌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신용빛고을근린공원 ▲일곡제2근린공원 ▲영상대대산근린공원 ▲홍흥어린이

공원 등 공연장이 설치된 6개 공원이다.

예약시스템은 북구청 홈페이지 예약신청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이 적용돼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공원시설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관내 모든 공원의 위치, 면적, 시설 등 주요 정보와 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일정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권형안 기자

# 경찰, 1년만에 또 현행범 놓쳐... '관리 소홀'

## 의무 아닌 탓에 수갑 사용 이번에도 안해

## 지난해 파출소·병원서 피의자 도주 2건도

현행범들을 허술하게 관리해 도주하게 한 경찰의 인이한 현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소한의 도주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은데다 감시도 소홀히 해 경찰의 대응은 지난해 발생했던 파출소 도주 사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발생한 월곡지구대 내 도박현행범 베트남인 10명의 집단 탈주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의 탈주 당시 월곡지구대에는 지구대 직원 7명과 기동대원 5명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도박하던 23명이 한꺼번에 붙잡혀 이들을 수용할 적절한 공간이 없자

경찰은 지구대 내부 회의실에 대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탈주극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 경찰의 판단이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적시된 내용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수의 피의자들을 관리할 경우에 대해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2항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불잡힌 베트남인들은 오전 6시 10분부터 20여 분 동안 달아났는데, 경

찰은 이같은 사실을 최초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6시 40분에서야 확인했다.

지구대로 데리고 올 당시부터 인상과 체격, 특징 등을 구분해 관리했다면 도주사실을 좀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주 방지에 효과적인 수갑은 이번에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수갑은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우려가 보이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4항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유치인을 다루는 피의자 유치 및 조송 규칙 제22조에도 수갑의 사용 범위를 출감·도주·극단적 선택·폭행 우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

저항 없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함에 따라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서내에서 최근 도주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임의동행자에 대한 주의깊은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해 7월 하남파출소에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A씨와 동행했지만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탓에 손쉽게 도주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광주 북부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병원서 놓치기도 했다. 화상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수갑을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두 건 모두 책임자에 대한 불분명고 처분이 내려졌다.

/김도기 기자

# 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료' 80~100% 지원한다

## 만 15~87세 경영체등록 농업인...농·축협서 가입

전남도는 농작업 중 생간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

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질병 시 입원비·수술비·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훈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농업인 12만6000여명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5만4302건의 사고가 발생해 167억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는 2022년 가입률 54%보다 높은 90%, 20만9000명을 목표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보도육교 안전관리 부정사례

## 광주시, 9건 적발

광주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보도육교 66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 시설물 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시설물의 준공연도 등 노후도와 위험성을 고려, 정밀 점검이 필요한 육교시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조사했다.

광주시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육교시설의 기초자료를 활용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술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절차 이행 여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키지 않은 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 광양시-영산강유역환경청

## 1회용품 줄이기 사업장 점검

광양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제도 안내, 행동 변화 유도형 캠페인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독려 등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내 29개 식품점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시는 점검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국민 캠페인 '1회용품 줄여가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업주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을 촉진했다.

/조선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추진

## 올해 시범사업 추진...공·사립 26개 유치원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 정서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공·사립 유치

원 26곳 700여명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유아들의 심리·정서

발달 검사를 통해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 상담사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심리·정서 발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별 후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유아·학부모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정서 발달검사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며 전문상담 비용은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원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을 하면서 아이와 학부모의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일부 아이는 발달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 '16~17일 광주문화제야행'으로 역사여행 오세요

## 재명석등·광주읍성유허·서석초 등 야간문화 향유 축제

동구는 오는 16~17일 ▲재명석등 앞 광장(5·18광장) ▲광주읍성유허 ▲서석초등학교 등 지역 역사·문화 재 일원에서 '2023년 광주문화제야행'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 향유 축제로, 올해는 '돌의 안부'라는 주제로 광주 시민을 찾아간다.

행사 첫날인 16일, 재명석등 앞 5·18민주광장에서 개막행사인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의 콘서트 '돌의 빛'을 시작으로 광주 5개 지구구의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광주문화제야행'이 진행된다. 광주읍성유허 일대에서는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함께 의재

허백련과 광주읍성의 가치를 되짚어 보는 '성돌카페 존설현', 전시로 만나는 '아들리에 無等等(무등등)', '전통 놀이 심터'(고누·바둑·철교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서석초교 일원에서는 문화재의 의미와 예술과 놀이로 경험하는 '붉은 벽돌학교', 광주문화제야행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해주는 '서석사진관'이 준비돼 있다. 단 '붉은벽돌학교'는 16일 장애아동을 위해 우선 개방되며 17일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동구는 개막행사와 일부 체험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접수한다. 또한 야행 축제 당일인 16일과 '광주문화제야행'과 연계된 동명동 삼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제 화폐 '상평통보'를 보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또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2-608-2403)와 동구 문화재활용사업 사무국(062-229-3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